

1

**코 Polymorphic reticulosis 환자에서
병발한 소장 악성림프종**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김재유 · 한지연 · 강진형 · 문한림
홍영선 · 김훈교 · 이경식 · 김동집

Polymorphic reticulosis는 불분명한 악성 성향을 갖는 질환으로 lethal midline granuloma, midline malignant reticulosis, lymphomatoid granulomatosis등으로 불렸으며, 그 후 Jaffe에 의해 angiocentric immunoproliferative lesion으로 제안되었다.

이 질환은 조직학적으로는 정상모양의 작은 림프구 및 다양한 수의 비전형적 lymphoid cell과 immunoblast가 angiocentric & angiodestructive infiltration을 일으켜 병변내의 광범위한 조직괴사를 유발한다. 첫진단시, 악성의 특징을 뚜렷이 보이지 않더라도 병의 경과중 약 1/3정도에서 국소 악성림프종으로의 이행을 보일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, 또 두경부 악성 림프종의 경우 복강내 악성림프종이 속발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.

연자들은 코의 polymorphic reticulosis로 진단받고 방사선치료후 지내던 중 1년후 회장에 lymphoma가 발생하였던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 환자는 32세 남자로 코에 생긴 polymorphic reticulosis로 진단후 방사선치료 받고(5000cGy) 지내던 중 1년 경과후 하복부동통이 심해 내원하였다. 내원전 약 3개월간 20kg의 체중감소가 있었고, 내원시 39.7°C의 고열이 있었으며 혈압 100/60mmHg 맥박수 108회/분 이었고 아학적 검사상 하복부에 압통 및 반사염통이 있었다. 검사실 소견은 Hb=8.6g/dL, 백혈구 6500/mm³, 혈소판 319,000/mm³였으며 FBS=104mg/dL, BUN=11.4mg/dL, Cr=1.0mg/dL, SGOT=13IU/mL, SFPT=10IU/mL였으며 복부전산화단층촬영상 회장부종괴가

관찰되었다. 하복부동통이 점점 심해져 복막염 의증으로 시험개복술을 시행하여 회장부의 악성 림프종(diffuse large cell type)으로 진단되었다.

회장 부분 절제술 시행하고 CHOP chemotherapy 8회후 무병상태로 경과 관찰중이다.

2

**부인두강 종물로 발현된
갑상선 유두상암증**
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-두경부외과학교실

김용환 · 김효열 · 민현기
정광윤 · 최종욱

증례: 저자들은 최근 인후통과 애성을 주소로 내원한 48세 여자 환자에서 이학적 검사상 구개편도의 종창 및 발적이 관찰되어 부인두강 농양으로 의심하여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잔류종괴가 확인되어, 진단적 및 치료적 부인두강 절제생검을 시행하였다. 병리조직학적 검사상 전이성 갑상선 유두상암증으로 판명되어 완료적 갑상선절제술(completion thyroidectomy)을 추가하여 치료하였다.

문제점:

1) 부인두강의 종양은 타액선종양, 신경성종양, 그리고 임파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, 갑상선암종의 부인두강내 전이성암종으로의 발현은 빈도가 적어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.

2) 부인두강의 절제생검 후 원발병소가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이차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.

요약: 부인두강내 발생하는 전이성 유두상암증은 정확한 병력청취와 이학적소견으로 초기에 진단을 할 수 있으나, 간과할 경우 진단과 치료의 결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. 따라서 저자들은 갑상선암종의 병력이 있고 부인두강내 종물이 전이성암종을 시사하는 경우 갑상선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.